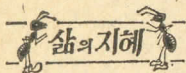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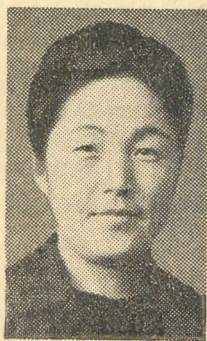


여성의 힘은 무한하다. 그 하나 하나 흩어져 있을 때, 그 힘은 참으로 나약하다. 그러기에 여성은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의 교회 여성이 나아가 아시아의 교회 여성이 되고 세계의 교회 여성으로서 연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박3일간 아시아의 교회 여성이 선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아시



박영숙



아여성대회를 연다. 이대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기 위해 먼저는 스스로의 아집과 독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음으로는 억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의한 공포에서 해방이 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각나라의 억압 받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고백적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다. 또 아시아의 문화적 토양속에 뿌리를 내려야 할 아시아적 복음의 본질과 모습을 연구한다. 특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젊은이, 노동자 등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한, 이 모임들은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금번 아시아 여성대회에서는 아시아 여성을 속박하고 인간화하는 모든 요인을 분석하고, 기독교 여성들이 단합하여 소수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아시아 여성들은 교회의 민주화를 우선 주장할 것이며, 다음으로 그밖의 불의의 세력을 제거하는

단합된 힘의 위력

남녀평등의 민주社會를 이룩해야

일에 힘쓸 것이다. 그래서 제 8차 총회에 제출할 여성의 소리에는 총회 구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문제가 우선 포함된다. 적어도 WCC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30%선을 주장한다.

한국 기독교 여성의 입장을 종합하기 위한 사전회의에서 모아진 아시아의 공통문제는,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이고 여성과 젊은이를 비롯한 약자를 차별하는 가부장적세력,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을 희생물로 삼는 강대국의 횡포, 특히 여성과연소자의 노력을 저임금으로 수탈하는 다국적 기업등의 경제적힘, 외채에 시달려 빛을갚는 수단으로 여성을 희생시키는 관광사업문제, 소비를 미덕으로 알게하는 사회풍토문제 등이었다. 그밖에 △아시아의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열쇠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 △생명을 보다 중요시하는 함께 사는새로운 가치의 아시아권 문화를 건설하는 문제, △한국의 대일관계에서 빚어진 문제인 지문날인을 비롯한 각나라의 외국인의 인권문제 등이 제기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한국의 눈길에서 벗어나있던 아시아를 아는 일에 그리고 한국을 그들에게 바로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할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여성들이 젊어진 무거운 멍에를 함께 벗어 버리고, 선교의 역군으로 바로서는 일을 공동으로 해낼수 있는 연대의 힘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이러한 아시아기독여성운동의 흐름에따라 한국교회 여성운동의 방향도 지금까지의 교회내의 봉사활동이나 회원들의 교육활동에서 크게 발걸음을 옮겨, 한국의 분단을 고정화시켜 이익을 꾀하는 외세를 물리치는 민족통일운동으로 교회와 사회의 민주화와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기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나가야 할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일 것이다.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는 민중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의식에서...